

# 전남도 올 관광객 6000만명 달성 '시동'

### 해양·섬·역사·문화·예술자원 활용 블루투어 상품 개발 남도한바퀴 겨울 상품 출시...중·베트남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남도가 2020년 관광객 6000만명 실현을 위해 해양, 섬,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을 활용한 블루투어 상품을 개발해 다채로운 홍보 마케팅에 나선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상품은 남도한바퀴 겨울상품이다. 지난해 신규 확충된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칠산대교 여행, 썰비치·접도 해안길 여행, 천사의 섬 여행 등 바다 여행을 테마로 9개 코스를 구성했다.

특히 겨울상품부터는 KTX와 남도한바퀴를 연계한 '새바여행(새벽기차 바다여행)'을 출시해 수도권 및 다른 지역 관광

객이 편리하게 전남을 관광할 수 있게 했다.

전남의 관광자원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 권역별 공동 마케팅 활동도 펼친다. 인근 시·군이 협력해 광역 관광상품을 개발해 공동마케팅하도록 도비를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또 전남지역 2개 권역 이상을 방문하는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를 지원한다. 전남에서 1박 이상 숙박과 식사가 포함된 단체여행 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사에 버스임차비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도입됐다. 광주·전남 관광지 할인카

드인 '남도패스'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500개소까지 확대하고 코레일 패스와도 연계한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서비스 영역 확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해외관광객의 경우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방한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펼치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5월 장시성·산시성에서 대규모 관광설명회를 하고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대만, 베트남 등 아세안시장 공략을 위한 마케팅을 계속한다.

2020년 크루즈 관광객은 대만에서 4항차 2만1000명이 입항을 확정된 상태다. 2021년 입항 확정을 위한 박람회 및 포트세일즈 참가, 선사 세일즈를 추진한다.

최근 개별여행객(FIT)이 증가함에 따

라 온라인 홍보마케팅도 강화한다. 드라마 촬영지, 미식, 축제, 사진촬영 명소 등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콘텐츠 확산력이 높은 '전남관광 SNS서포터즈'를 운영, 활발한 바이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진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장은 "전남은 생태, 문화, 힐링자원이 풍부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이 많아 국내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다"며 "전남의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로 국내외 방문객의 오감을 사로잡는다면 관광객 6000만명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므로,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관광상품을 수시로 개발하고 국내외 홍보를 활발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236억

### 11만2000농가...오늘부터 지급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농업소득보전법이 통과됨에 따라 쌀 목표가격이 확정돼 20일부턴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한다. 2017년산 1161억원 보다 925억원 줄어든 규모로, 쌀값이 오르면서 전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가격(21만4000원)보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은 2013-2017년산(5년간) 18만8000원에서 2만6000원 인상된 2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쌀 직불제가 올해부터 공익직불제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2018-2019년산에 한해 적용된다. 전남지역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236억원이다. 2017년산 1161억원 보다 925억원 줄어든 규모다. 전남 11만2000여 농가에 쌀 명절 이전에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된다.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2017년산에 비해 925억원 줄어든 것은

2018년 수확기(10월~2019년 1월) 이후의 쌀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실제 2018년산의 경우 수확기 쌀값이 80kg당 19만3448원으로, 2017년산 15만4603원보다 3만8845원이 올라 상대적으로 변동직불금이 줄었다.

이처럼 쌀값이 올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규모는 크게 줄었으나, 실제 농가에서 80kg 가마당 수입은 약 21만917원 수준으로 2017년산 18만3000원에 비해 2만8000원 정도 늘었다.

광합성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근거가 되는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늦게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이 늦어졌다"며 "2019년산 변동직불금도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후 2월께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쌀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한 쌀값안정 등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동시정기 등 쌀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개소식 17일 광주 북구 시니어클럽 기능보강사업(리모델링) 개소식에서 문인 북구청장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 광주시, 올 해외시장개척단 9차례 파견

### 지역 중소기업 80곳 참여 중·러 등 16개국 22개 도시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80여곳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올 3-10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은 광주전남 KOTRA지원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와의 공동으로 추진한다.

매년 진행되는 이 사업은 해외에서 종합수출상담회를 열고, 현지바이어와 기업별 주력상품 수출상담을 주선하는 등 판로개척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중국·인도·

러시아·중동 등 16개국 22개 도시를 대상으로 9차례 진행된다.

광주시는 참여기업에 항공료(1명) 70-50%, 상담장 임차료, 통역비, 시장조사비를 지원한다.

해외시장 개척단별로 매회 10개 업체를 선발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파견 전 2-3개월 전 공고되는 안내문을 참고해 소정의 신청서를 수행(접수)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오는 22일까지 3월에 추진하는 인도시장개척단(3월 8-15일)을 모집 중이며, 희망 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062-369-3051)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농식품 유통·마케팅 강화 1700억 투입

### 4대 과제 34개 사업 추진

전남도가 올해 농식품 유통·마케팅에 1700억원 이상을 투입해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에 나선다. 청정 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해 농가 소득 향상 및 귀농 활성화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확충,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전남쌀 품질 고급화 및 판매 활성화, 산지 유통 기반 구축 및 안전한 농식품 공급 등 4대 과제 34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외 온라인 판매망 구축 15억원,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구축 20억원, 수도권 농산물 공동물류 구축 6억원 등 신규 사업과 TV 홈쇼핑 방송판매 확대 및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직매장 건립 7개소에 60억원을 투입한다.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 제조·가공 지원에 49억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60억원 등 8개 사업에 16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발효식품산업 국내외 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100억원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시군과 농정협업 강화

### 도청서 공익수당 등 현안 논의

전남도가 전국 최초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등 급변하는 농업 현장에 맞는 혁신 농정을 위해 시·군과의 협업 강화에 나섰다.

전남도는 19일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시·군 농정과장과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등 2020년 농정 분야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및 과장, 22개 시·군 농정업무 담당과장 등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비롯해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 농기계 종합

보험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설명, 시·군의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전남도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기존 농업 직불금을 통합·개편한 공익직불제에 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지원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시·군에서는 지난해 추진한 우수시책과 올해 중점 추진사항을 발표하고 우수시책은 도 지원 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등을 요청했다.

전남도는 담당군의 농업회의소 활성화 사업 등 시·군 우수시책에 대해 농업인단체, 농업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사업성 검토 후 도 시책으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설 연휴 수돗물 불편 '121'로 전화하세요

### 광주상수도본부, 24시간 근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설 연휴(24-27일) 수돗물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24일 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명절에는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해 수도관 압력의 변동이 심해지면서 누수, 출수불량 등 사고가 잦다. 특히 설에는 추운 날씨로 수도시설이 동파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 출수 불

량 등 사용 불편에 대비해 1월 한 달간 각 정수장과 시내 고지대와 사회복지시설 급수시설을 점검하고, 공사현장 주변 시설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각종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급수종합상황실, 민원기동처리반, 수질검사반, 정수장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1일 50명씩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수도권 관련 불만사항은 국번없이 121(휴대전화 이용 시 062-121)로 신고하면 신속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형호 기자 khh@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 (100kW~1,000kW) 중형 (1,000kW~3,000kW) 대형 (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